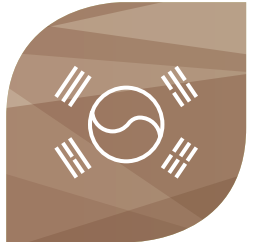


#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Island of Peace and Cultural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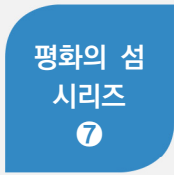
## 필자 소개

김새미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지역학 박사(2011).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외교, 문화정책 및 유럽사회의 문화적 요인이며, 최근 연구로는 “문화예술 매개로 한 난민에 대한 환대 가능성”, “외교대상과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문화외교의 쟁점과 추이”, “도시재생에서 나타난 문화접근법의 대안 시민성 회복으로서의 문화 공간” 등이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Island of Peace and Cultural Approach

## CONTENTS

요약 .....	2
<b>I</b> 들어가며 .....	3
<b>II</b> 평화와 문화의 잠재력 .....	6
<b>III</b> 유럽에서 평화세우기와 평화문화의 제도화 .....	11
<b>IV</b> 평화와 문화의 연결: 유럽사례와 제주에 대한 시사점 ...	17
<b>V</b> 나가며 .....	28

#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 Island of Peace and Cultural Approach

### 요약

본 연구는 평화문화 담론을 확장하는 데 있어 문화가 기여하는 바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레더라크(J.P. Lederach)의 평화 개념과 갈등기제로서의 문화의 연결지점을 담론과 정책사례로 분석하고, 유럽에서 평화논의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주 평화문화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제주에서 새로운 평화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되는 문화적 접근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교육과 정책 학습을 체계화했을 때, 평화담론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 간 대화에 기반하는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적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며 국제평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평화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발화할 때 지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문화적 접근법은 지역민을 아우르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평화발화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에서 평화담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콘텐츠들의 유기적 사업 관련성을 탐색했다. 종합해 볼 때, 제주 '평화의 섬' 구축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접근법은 갈등에서 벗어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문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 **주제어** 평화, 문화적 접근법, 도덕적 상상력, 스토리텔링, 문화 간 대화

## 1. 들어가며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는 도구로써 ‘문화’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UNESCO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 간 대화 촉진에서도 논의되었고,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도 문화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갈등을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진행된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국제 사회 분쟁의 해결장치로서 문화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고, 인권, 환경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면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버거(Peter Burger)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주관적 간 주관적 경험의 의미로서 모든 세계의 근간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현실에 주입하며 주관적인 의미를 자신의 모든 행동에 부가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 신념체계, 도덕 규범, 제도 등과 같은 문화적 산물로 객관화되고, 도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사회적 담론과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지침서로 의식 속에 재흡수된다고 보았다(Wuthnow 2003). 즉, 세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이고 문화의 다양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다양성과 상호소통을 통해 갈등을 전환하는 역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문화 간 대화와 교육이 정치 - 사회 안정성의 근거로 작동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은 평화를 브랜드로 평화실천을 추진해 오면서 전쟁, 인권, 환경, 빈곤, 사회적 차별 등 제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는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다. 동북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정착, 제주 4·3 관련, 다목적 평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네 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나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은 제한적이다. 4·3 기념관과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환경 조성이 대표 문화사업으로 평화교육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단편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2020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2.0’ 사업에서는 글로벌 평화협력, 남북교류협력, 4·3평화, 평화산업, 평화문화 확산 다섯 개 분야로 확대되었고, 평화문화 확산 영역에서 제주형 평화교육을 개발하는 사업이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과연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결부된 일상 속에서의 평화 문화가 배제된 채로 ‘평화의 섬’ 논의가 가능한지, 제주도의 정체성과 과연 결부가 되어 있는지 숙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화의 섬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화문화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발화되는 평화이야기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문화를 함께 연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화는 인간이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향유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복잡한 갈등과 폭력관계를 푸는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접근방법일 수도 있다. 오랜 분쟁으로 많은 상흔을 남긴 북아일랜드를 사례가 있다. 평화학자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분쟁이 종결되기 전인 1996년 접했던 공연이 어떤 토론과 협상보다 이념을 화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자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sup>1)</sup> 1992년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 중심가의 거리 연주도 평화의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양영은 2019/4/30).<sup>2)</sup> 당시 증오와 폭력의 지배에 대항한 시민의 상징이자 시민들에게 치유제로 남았다. 이처럼 갈등과 대립, 폭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구조와 맥락 속에서 설명이 되지만, 문화는 그것을 쉽게 풀어 갈 힘도 상흔을 치유할 힘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갈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출가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sup>3)</sup>는 “우리가 하는 공연이 결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의 공연을 봤다고 사회를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역시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성공을 빌미로 문화현상을 단순하고 일반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그것이 연극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할 바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의 평화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보다 현명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바가 본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제주에서의 평화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연결지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평화담론에서의 문화

1) 역사적인 테러 장소인 칼리해블린 호텔에서 아일랜드 전통 음악가 폴 브래디의 ‘섬’을 연주를 배경으로 현대 무용가들이 32년간의 분쟁이 상영과 함께 공연을 했다(Lederach 2005).  
 2) 베드란 스마일로비치(Vedran Smajlović)는 1992년 5월 28일부터 2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폭탄 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사라예보 시내의 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를 연주했다.  
 3) 독일 샤우뷔네(Schaubühne) 극장 연출가

역할, 사례, 유럽에서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이 제주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를 발화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제주와 같이 자연과 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평화담론의 논의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단선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사회, 민간부분의 협력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접근법을 통한 평화담론의 논의는 시민들로부터 발화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먼저 평화의 범위와 의미를 고찰하고 레더라크의 평화논의를 통해 평화담론에서 문화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유럽에서 논의된 평화와 문화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적용하는지 고찰한다. IV장에서는 구체적인 유럽 사례와 함께 유럽의 경험이 제주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V장에서는 남겨진 문제와 과제를 제안한다.

## II. 평화와 문화의 잠재력

### (1) 평화란 무엇인가?

영화 '더 스퀘어(The Square)' 중 평화와 현대의 공간인 예술작품을 홍보하는 장면에서 평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평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지켜야 할 개념임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페이스북(face book)에 “세계평화기원”을 올린다면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치부할 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이처럼 평화개념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에게 분명 존재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쉽게 반응을 유인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논의되는 평화도 이미지가 한정되어 이중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 한반도에 부여된 평화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분단과 연계되어 전개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남북 갈등의 문화로 논의되면서도 고착화된 분단이 때로는 불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2018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를 평화롭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36.6%)이 평화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5.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통일연구원 2019). 분단과 갈등의 요소들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평화가 피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면서도 구체화인 형태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평화의 범위를 분단이라는 특수성 아래 논의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홍용표 2018). 그럼에도 최근 논의가 확대되어 인간의 삶에 기초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평화가 다뤄진다. 갈통(Johan Galtung)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인식되던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규정한 바 있다. 평화를 ‘폭력의 부재’라는 정의하면서 폭력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가시화된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가 평화로 포함되는 점을 경계하면서, 평화연구에서 조화, 협조, 통합과 같은 적극적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볼딩(Kenneth Boulding)은 강자·약자로 나뉘는 구조적이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아가 초월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이미지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정의하며 고정적이기 보다는 사회관계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박명규·이상신 2011). 양자가 평화에 대해 상반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평화의 좁은 정의에서 벗어나 주된 논의가 인권, 민주적 참여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적 요소들이 내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볼딩(Elise Boulding)은 평화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지향적’ 개념이며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홍용표 2018). 볼딩은 ‘200년 된 현재’를 살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평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되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하는 미래의 시점까지 고려해서 유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논의들을 종합하면 최근 논의되는 평화는 개인이나 삶으로 맥락화해서 상황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방지,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문화 등의 영역 뿐 아니라 인권, 양성평등, 민주적 참여, 관용, 연대, 자유로운 표현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장된 평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평화구축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평화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일반 주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회복과 평화적 관계구축이다(김동진 2015). 그러나 평화가 결과가 아니라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 속에서 이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도 이상으로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문화가 현명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 (2) 레더라크의 ‘도덕적 상상력’과 갈등전환·치유 기제로서의 문화

레더라크(Johm Paul Lederach)는 평화실천가이자 연구가로 갈등 속에 내재한 건설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이를 평화세우기(peace-building) 개념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갈등과 분쟁의 해결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역동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레더라크가 주장하는 평화는 갈등과 분쟁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이를 평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찰과정을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으로 특징지었다. 갈등전환이라 함은 현재 있는 갈등을 현상유지하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갈등 관리나 강자가 갈등을 없애기 위해 약자를 제압하거나 회유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해결과는 다르다.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은 갈등을 통해 미래 갈등 집단들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상상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Lederach 2005 29; 김홍수 2020 318)<sup>4)</sup>. 때문에 갈등전환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존중의 정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와 건설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비폭력적인 생활방식과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다.

레더라크가 주장하는 도덕적 상상력은 평화세우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세우기는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핵심·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 관계, 역설적 호기심, 창의성, 위기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Lederach 2005). 이를테면 폭력의 굴레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연결되었던 관계망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바를 이끌어 내야 한다(관계). 그러나 걸으로 나타난 모순, 표면과 심연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판단은 미뤄야 한다(역설적 호기심), 때로는 기존과 다른 것을 시도할 때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위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한다(창의성). 레더라크는 이러한 과정이 미학적·예술적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예술은 인간 경험에서 나온 것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 존재와 경험의 심연을 건드리는 것이다(Lederach 2005, 81). 예술가들은 그들의

4) 레더라크는 냉전 이후, 국제적인 전쟁보다 다양한 민족, 종교로 인해 발생된 정체성의 문제에 주목하며 국내적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제도화된 증오와 분열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양식과 함께 축적된 고통의 표현으로 발생하며, 전쟁에 수반되는 고통과 역사적인 적대감을 강화한다는 점을 규명했다(Lederach, 1997, 207; 김홍수 2020, 320).

거주지를 발판으로 미래의 대안을 계속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며, 존재하는지 무엇보다 어떤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예술의 중심을 직관과 연결할 수 있는데, 이는 평화세우기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레더라크는 우리는 일상에서 기술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접근하면서 창의적 행위인 예술감각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 예술가로 상상하고 복잡한 갈등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위를 관찰하듯, 폭력을 초월하기 위해 창의적인 행위로 변환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더라크는 평화세우기에서 예술적 적용이 두 가지 면에서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화해와 치유의 관점, 둘째는 예술가로서의 의미로 예술이 정치적 변화의 화용론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답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이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 사회에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갈등을 경험한 당사자들 간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뿐 아니라 여러 상호작용은 구조적 폭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역을 창조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화해와 치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치료에서도 인식, 관계, 행동이 지식과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 현실에서 반영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자기와 타자의 인식과 서술, 은유적 표현, 통찰력, 창조적 예술에서 변화에 기여하는 주체적 과정을 식별하기도 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본질적인 미학적 주체적 경험을 탐구하게 되는데, 거버(Nancy Gerber 2018)는 이와 같은 예술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바 있다. 문화를 접하면 생각을 가시화시키고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 그 문제와 본질에 대해 다시 반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실존적인 긴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유인하는 잠재적 공간이다.

*“예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경험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마주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진실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Gadamer 1975; 2003, 100)*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나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창의적인 변증법적 담론의 과정을 거쳐 마음에 보이지 않았던 사실과 느낌들이 가시화되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타나게 된다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레더라크가 묘사한 ‘도덕적 상상력’이 수행하는 역할과 부합한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주변적인 인식을 허용하고, 문화예술이 갖는 상호 주관성은 공감과 조율이 높아져 타인의 감정적 경험에 유입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삶을 새롭게 상상하고 변형적인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레더라크는 현실과 일상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문화·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술가로서의 의미는 전체를 꿰뚫는 직관과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레더라크는 삶과 세상이 무수한 사건과 행동, 다양한 현상과 인과관계로 상호간에 강력한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문화, 즉, 레더라크가 평화를 위해 언급했던 ‘인간의 예술적, 문화적, 창조적 개입’은 이러한 존재의 무작위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우리의 행동은 공통의 가치와 규범, 관습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통해 전개되는데, 문화는 규범적이고 통합적인 틀(frame)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옳은 것인지 혹은 우리가 나쁘다고 규정짓는 행동, 추한 일 또는 잘못된 일인지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거나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는 내실화되고 공유된 규칙 체계를 제공하는 규범적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김홍수 2020). 이처럼, 레더라크에 따르면 문화는 관계적 맥락에서 통찰력 있는 내실화된 규범과 가치의 총체성, 집단 정체성을 규정짓는 지식과 실행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화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구조상 적대자와 사회의 중재자가 될 수 있으며, 문화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인 ‘우리’를 형성해 가고 지리적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활동은 규범과 가치관의 변혁에 필요한 반사적인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정해진 규범과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건설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레더라크의 ‘상상력’의 과정과 의미와 역할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III. 유럽에서 평화세우기와 평화문화의 제도화

유럽 내에서의 평화는 전쟁과 갈등 종식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서 확대되어 갈등과 분열을 포용하고 평화롭게 공생하는 의미로 수용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 인권, 안정을 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유럽에서의 갈등 해결과 문화 담론

독일 대외문화교류연구소(Insf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IFA) 로널드 그레츠(Ronal Grätz) 사무총장은 “문화관계 전문가로서 문화의 갈등변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오랜 신념과 희망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까지 문화 및 문화(예술)교육이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해 온 방법론은 제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과 문화기관들은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문화를 활용하고자 다양한 방안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담론이 문화예술실행사, 행정전문가, 연구자 등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에 재직 중인 무우 크타르 코카체(Moukhtar Kocache)는 포드 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출범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시민사회가 강하게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예술 공간의 자금 지원으로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했고 팔레스타인 예술 교육 지원 등으로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예술적 표현 경험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는 ‘시위와 봉기’에 중요한 요인을 표현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새로운 공공영역의 출현으로 귀결 지었다. 때문에 갈등의 용어는 확장되어야 하며 문화가 ‘아랍의 봄’을 이끄는 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카불(Kabul)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제미마 몬타구(Jemima Montagu)도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한다. 1840년 제1차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사를 다룬 단편극 “The Great Game: African”의 사례를 들면서 문화예술 작품이 때로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효과적으로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전달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당시 나토(NATO)사령관 데이비드 리차드(David Richards)는 공연을 미리 봤다면 보다 나은 지휘관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동의했을 만큼 예술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친숙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문화예술 연구소가 카불의 옛 도시인 무라드카네의 복원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유산의 보존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부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분쟁변화와 평화구축 NGO의 수전 코스시스(Susan Koscis)는 가장 폭력적인 환경에서도 문화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4000건의 살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인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 활동을 통해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과 경험들이 주민들에게 유일한 구제책으로 작동함을 체험했다고 언급하면서 레더라크가 갈등을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도덕적 상상력(the moral imagination)’의 중요성을 지지했다. 갈등과 폭력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할 때, 오히려 인식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술적, 문화적, 창조적 개입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오페라, 연속극, 라디오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매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대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정치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낳을 수 있는 도덕적인 상상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각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종 평화담론을 언급하면서 예술은 상징적, 감정적, 은유적 차원에서 작용하므로 완전히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과정은 배제되어 있는 점에 반대한다. 우리가 갈등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는 평화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정부 산하기관 팔레스타인과 가자(Gaza)지구 난민을 위한 지역사회문화 기금(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 Zusammenarbyte, GIZ) 대표인

크레이머(Gudrun Kramer)는 폭력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외부의 모순에 부딪히면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로 이어져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 문화, 구조(사회의 제도화된 관계)라는 세 가지 용어를 중심으로 삼각관계를 통해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 내재화된 공유 의미 문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문화는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메커니즘”이자 갈등 전환을 유인하는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의 상황에 빛대며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갈등 연구와 평화 정책 싱크탱크 기관인 베르호프 갈등연구소(Berghof Conflict Research)의 마르티나 피셔(Martina Fischer)는 문화예술의 연결성에 주목했다. 예술이 상황을 전환하는 연결고리 역할(build bridge)로 칭하며, 갈등 상황에서 문화적 접근법은 여러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자율성과 그 반영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문화적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갈등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갈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표준화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문화가 평화에 미치는 성과 평가에 대한 조심성은 다른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다. 독일 유럽의회 녹색당 외교정책 전문가 프란치스카 브란트너(Franziska Brantner)는 시민 사회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한 안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자금 지원이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적 접근법을 취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갈등관리와 연계하여 문화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성과 및 과정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 안보와 개발, 지배구조의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럽연합(EUISS) 안보연구소 다미엔 헬리(Damien Helly)도 평화적 해결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요인의 투입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전면전이 없었던 유일한 지역인 마케도니아에서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성과 평가에서 가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잠재적인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문화 활동의 잠재

성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 또한 경계하고 있다. ‘협상을 문화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화가 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대안이라는 전제는 야심찬 목표라고 비판한다. 이외에 각국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화 활동으로 개입할 때 문화 정책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렇듯, 성과측정·과도한 기대와 책임 부과·헤게모니적 접근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가 갖는 통합·회복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주류 담론이다.

## (2) 제도에 명시된 평화와 문화: EU의 국제문화관계 전략안(2016)

문화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대화를 마련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평화구축 노력에 있어 문화 활동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립하는지, 현장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노력과 결합을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문화와 갈등’에 관한 워킹그룹을 추진 및 실행하고 있다. 피상적 차원의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 체계로 유인하는 현명한 해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정책안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도 평화문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은 문화에 대해 엄격하고 제한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 문화는 회원국과 개인의 영역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대외문화관계를 규정하는 문서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갈등 조정기제로서의 역할이 비중 있게 명시하면서 평화세우기와 문화를 연결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16년 8월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합의한 ‘국제문화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전략에 대한 공동 성명(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에서 변화와 갈등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 국제문화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문화는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요소로 다루었다. 문화는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갈등을 예방하는 평화기제로 작용하고 성장엔진이며 다양성을 실천하여 테러예방까지도 가능한 중요한 요소로 유럽연합은 문화와 외교정책을 연결하여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임 언급하였다<sup>5)</sup>.

간략하게 전체 전략안을 살펴보면, (1) 보조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인권과 다양성, 상호 문화 간 대화의 증진을 높이고자 하며, (2)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동력으로서 지원하는 것, (3) 갈등중재, 극단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문화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유럽적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는 크게 3가지 틀에 근거하여 전개하고 있다. 실천을 위해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중 평화와 갈등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첫째, 문화적 다양성 증진 및 인권 존중(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과 둘째, 상호 존중 및 다문화 소통 증진(fostering mutual respect and inter-cultural dialogue)이다. 전자의 경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화, 안정, 그리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개발과 공공 분야의 참여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그리고 장려할 의무를 지니는 바,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문화가 국제 관계에 있어 잠재적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유럽 문화와의 대화를 중시한다. 지역적 민감성(local sensitivities)과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소통, 경청, 교육, 상호 간의 역량 강화, 글로벌 수준의 연대를 유인하고 상호 협력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연계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에서 평화로운 지역사회 관계를 위한 문화 및 문화 간 대화 촉진으로 평화와 문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3.2. Promoting culture and inter-cultural dialogue for peaceful inter-community relations)에서 갈등과 긴장에 있어 문화가 조정기능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종교간 대화를 포함한 문화 간 대화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평화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의 구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상호 간의 소통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가적 화해를 촉진하며, 급진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추진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데, '(b) 문화 간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의 장을 통해 문화가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5) 2017년 5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EU의 전략(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에 대해 문화부분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아래서부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대표단의 동의를 얻었고, 유럽연합 외교 안보 정책담당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5일 유럽의회는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유럽연합 전략 보고서'(European Parliament's report o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를 채택하였는데, 글로벌 국제 정세에서 유럽연합이 더 강력한 역할을 위해서는 제3국과의 정치적 대화에서 문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필수사항으로 주장하였다.

분쟁 후 사회에서 화해와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사이의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하는데, 성공적인 사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EU 통합 추진과 베오그라드-프리스티나 대화를 제시했다. 평화구축과의 논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분쟁 전후 문화 간 대화를 통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기구(ICSP)와 ‘Young Arab Voice’와 같은 청년(청소년)들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사회 프로그램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극단주의와 폭력을 방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토착민권리선언(UNDRP)에 근거하여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평화와 문화의 논의를 크게 두 관점에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를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접근법을 적용할 때, 각 국의 문화 간 대화, 대외적인 측면과 지역 내 정체성과 평화의 문제를 연계하여 문화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두 관점에서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제주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 IV. 평화와 문화의 연결: 유럽사례와 제주에 대한 시사점

### (1) 지역적 관점: 집단적 기억과 다양한 스토리텔링

갈등은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적 기억은 과거의 재현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이며, 집단의 존재와 지속성에 대해 인식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통일연구원 2019). 즉, 집단적 기억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혹은 역사 전달에 치중하기보다 심리적·감정적 영역을 해소하는 것에 가깝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적 기억을 화해와 치유의 과정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적 맥락을 다양한 이야기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추모 조형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2004년 12월 베를린)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과거 전범국이었던 ‘히틀러시대의 독일’과 구분을 짓고자 했다.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정부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일 이전 베를린 시민단체 ‘베를린 관점’이 제안한 홀로코스트 추모 건립을 추진하였다(구연정 2018). 설립 과정에서 전범국가로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지, 어느 공간에 조성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연방 정부, 베를린시의회, 정치가, 시민단체, 기억문화 연구자 등의 참여하여 10년에 걸쳐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7년 건축가 재미 유대인 피터 아이젠만(Peter D. Eisenman)의 설계로 1999년 추모 조형물 건립이 의결되었다. 2004년 12월 추모비가 개관하였는데, 1만 9000㎡ 공간으로 베를린시 중심가에 자리하였다. 높낮이가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2711개의 콘트리트가 표식 없이 세워져 있고 낮은 조형물이 중앙으로 갈수록 벽이 높아지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 그림 1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추모 조형물



이처럼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참상이 일어났던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 보고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의미를 찾는 여행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2000년 말콤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넌(John Lennon)에 의해 학술적으로 제기되었다(김현식·양정호 2014). 대표적인 사례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스톤(Peter Stone)에 따르면 다크 투어리즘은 전시, 지하수용공간, 묘지, 성지, 분쟁현장, 학살, 유희 공간으로 유형을 나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고문실, 처형대, 가스실, 화장터, 생체 실험실, 희생자들의 유품과 신체, 나치기록 영화 등이 있어 가장 잔혹한 행위로 분류되는 학살공간에 해당된다.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추모 조형물’은 이전의 다크투어리즘과는 다른 장소적·미학적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장소적 특수성을 보면, 추모비가 위치한 장소가 유대인 박해 장소가 아닌 베를린 시내 중심가라는 점이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며, 더욱이 해당 추모비가 위치한 공간은 독일과 프로이센의 수도로 750년

넘게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국의사당과 브란덴 부르크 문 인근이다. 반면, 추모비는 과거 독일의 범죄를 자백하는 기억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속에 배치하여 삶 속에서의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애도해야 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구연정 2018). 둘째, 공공예술·미학적 특수성도 지닌다. 직사각형 콘크리트 조형물은 유대인으로 상징화되는 잿빛 머리칼, 단순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치의 잘못을 고발하며 희생자의 죽음을 형상화 한 것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추모비를 접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이 수용소로 들어가는 착각을 유발하도록 의도했다고 한다(구연정 2018). 실제로 거대한 모지 속으로 들어가는 숙연함과 당시 나치의 잔혹함을 상기한다. 이처럼 해당 추모 공간은 직접적으로 사건을 전달·묘사하기 보다는 이전과 다른 시도를 통해 죽음에 대해 새롭게 환기하고 용서를 비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다크투어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장소가 주목받고 있으나 사실 역사적·비극적 사건을 대상으로 관광과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 세계문화의 집(HKW, das Haus der Kulturen der Welt) ‘100년의 현재(100 Years of Now) 2015-2018’

독일 ‘세계문화의 집’에서 기획한 ‘100년의 현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 철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모습을 진단하는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했다. 연방정부 문화예산으로 독일의회 결정에 따라 외교부가 지원하여 컨퍼런스, 전시, 콘서트, 연극, 저널 발행 등의 다양한 형태로 4년간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단일민족 국가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세계정세로 바뀌어 왔는지, 근대화 이념은 여전히 유효한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음악은 얼마만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여전히 저항의 도구로 쓰이는지,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주제로 작품이 진행되었다.

여러 작품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민, 제네바 호수 에피소드(1927)” 프로그램은 과거 (역사적) 텍스트를 저자와 청중이 함께 있는 낭독 프로그램이다. 저자 스테판 즈웨이그는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군대가 독일의 작은 마을을 침략했을 때, 한 개인의 끔찍한 운명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피상화 된 권력에 의해 허물어지는지를 담담히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청중들은 난민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닌 이전 우리의 역사일 수 있는 공유의 역사임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죽음의 사운드(Killing with Sound)”는 덴마크 인류학자 린드(Tore Tvarno Lind)가 고의로 조성된 난폭한 음의 진행과 연주, 혹은 강요된 반복 청취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게 고문 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탐구하고 청중들과 공유했다. 신체에 살짝 피가 날만큼의 작은 상처를 낸 후 신경이 잔뜩 예민해진 상태에서 3일간 수면을 금지시키고 에어로스미스(Aerosmith)의 곡 ‘멜트로프(Mealt Loaf)’를 들려준 뒤,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한 에티오피아 테러리스트와, 미국이 고의로 강렬한 음악이 담긴 CD를 군대와 일반인들을 통해 배포시켜 이라크, 쿠바, 아프가니스탄의 감옥에서 활용하게 된 사례 등이 있다. “역사를 재서술하기(Re-Narrating History)”에서는 식민지와 현대국가에 대한 재논의하거나 현대사 혹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개념이 현재에 갖는 의미를 아티스트와 학자가 함께 토론 및 공유하고 출판하는 프로젝트, 문화적 지식이 어떻게 이미지로 재현되는지 가상영역에서 한계와 변화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현재의 사전(Dictionary of Now)” 등으로 다양한 주제로 서술되었다. 이는 유럽, 독일이 공동의 유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국제적 관점: 평화교육과 문화 간 소통

- 안나 린드재단(Anna Lindh Foundation)<sup>6)</sup>의 ‘아랍청년들의 목소리(Young Arab Voice)’

*“점점 커지는 불신과 양극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포용적이고 공감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한다.”*

6) 안나 린드 재단 홈페이지: <https://www.annalindhfoundation.org/> (최종검색일: 2020.10.5.)

유럽연합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문화적 접근 사례로는 안나 린드 재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 교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지중해 국가 시민들의 시각을 전환하고 시민사회를 확립하고자 시행되었다. 지중해 분쟁, 경제적 불평등, 난민의 구조적 발생, 양극화와 정체성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을 파악하고자 문화 간 대화를 위한 교육, 기술, 미디어를 강조하고 토론, 교육, 국제회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확산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토론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안나 린드 재단(Anna Lindh Foundation)은 유럽연합과 지중해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으로 상호대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기관(the first common institution for dialogue co-created by the EU and Mediterranean Partner countries)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와의 전쟁’을 기점으로 “대화를 재개 하고 문명의 충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에 의해 추진되었고, 정부 간 기구로서 영국문화원과 독일 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행 계기는 EU는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지중해 파트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후, 2003년 ‘유로-지하 재단 설립’을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문화 간 대화를 위한 유럽-지하 재단(Euro-Mediterranean Foundation for Dialogue between Cultures)’으로 불리던 재단은 유럽 남북의 동반자 관계와 다자주의를 지향했으나 2003년 증오범죄(hate-crime)로 2003년 9월 피살된 고(故) 안나 린드(Anna Lindh) 스웨덴 외무장관을 기리며, 2004년 Euro-Med 회원국들의 외무부장관들이 모여 안나 린드 재단으로 출범시켰다.

상호소통의 시작은 2006년 지역 문화 간 학습 프로그램과 보조금, 수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다. “Dialogue 21” 청년 캠페인, 2008년 “1001 Actions for Dialogue” 캠페인과 2010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ED 포럼에서는 정책, 언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구축하는’ 풀뿌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럽의 민주주의 개입 프로그램들이 2010년 ‘아랍의 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결과는 사실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튀니지의 사건을 시작으로 알제리,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반정부의 시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 저항운동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이후 유럽사회에서 문화 간 대화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유인하면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확대로 작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사업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2011년 튀니지에서 열린 교류포럼에서 영국문화원과 함께 ‘Young Arab Voice’ 토론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으면서 2016에는 ‘Young Meditarian Voice’로 확대되었고 문화시민권에 대한 지침서도 출간했다.

‘Young Arab Voice’ 프로그램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내러티브, 포괄성, 공감, 교류를 통해 관용을 높이고 자유의 가치를 익히는 것으로, 첫째, 극단 주의자들의 담론과 과격화에 맞서려면 대체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탄력적인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둘째, 신뢰와 편협함을 넘어서는 포용적이고 공감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갈등 역학을 이해하고 개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들이 대화와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 운동을 주도하여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과는 달리 중동지역의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랍권 국민의 움직임으로 평가하지만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정치적 불안,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의 폭력사태가 계속되었고 개혁은 좌절되었다. 2019년 현재 이 지역의 젊은이들 중 오직 36%만이 아랍의 봄 이후 상황이 더 나아졌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데, 2012년의 72%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청년들이 선거권 박탈로 주요한 정치적 참여나 대표에서 배제되었다. 일례로 요르단에서 전체 인구 평균 나이와 정치인의 평균 나이 차이가 43세나 된다. 이러한 배제는 매체를 소비하는 패턴에서도 가시화되었는데, 2016년 지역 내 청년층들은 온라인 뉴스 45%, 소셜미디어 32%가 소비하고 오로지 청년 7%만이 신문에서 뉴스를 접했는데, 이는 2011년 62%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불충분한 교육제도로 이어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인구폭증에 반해 높은 물가와 청년실업은 경제난을 가중시켰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다수 국가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대략 3억 명의 청년으로 수치화된다. 그러나 취약한 세계경제 성장, 저유가 등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고용하기 어려웠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 25%에서 2019년에는 30%에 달했다.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이다(The Economy 09/01/16). 관광 수입 감소, 부패하거나 족벌주의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 뿐 아니라 목소리조차 낼 힘을 지니지 못하였고, 취업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는 통계가 수치화되었다.

이외에도 지속되는 내전과 IS에 대한 공포감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은 야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젊은 세대에 단절과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내란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로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우려되었다. 비록 2016년 아랍 청소년 설문조사에서는 중동 젊은 세대들의 77%가 이슬람 무장단체(Daesh /IS)의 부상을 우려한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급진화를 한계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극단주의에 가담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인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시선이다. 그럼에도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는 분단된 사회에서 긴장을 가중시키는 불안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은 청년들의 불안정과 과격화의 공통적인 원인인 좌절된 열망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내러티브를 형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역 청년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인하는 취지를 가지고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범위를 확장한 ‘Young Meditarian Voice’에서는 시민 사회, 교육, 정책 입안자들을 연결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과 안나린드재단의 핵심은 교육과 연관이 있다. 중동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여론은 민주주의보다 사회 안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되었고(2011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92%였다면 2016년에는 민주주의는 53%로 하락한 반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28%로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이 잠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의 질이나 노동시장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데 미흡했다. 예컨대, 지역 전체에서 정부 예산의 17.5%가 교육에 쓰이지만, 낮은 지식전달과

성취도,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시민적 가치, 고용과 시민권 획득에 기술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YAV·YVM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불만과 잠재력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다.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토론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대안적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토론 능력 개발을 정식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 파트너 시민사회 조직의 조직적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 청소년 주도형 토론 및 옹호 콘텐츠의 상호 관련성과 청소년 활동주의의 글로벌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여 청소년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직설적으로는 중동 국가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 즉, 사고의 확장,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한 동시에, 실질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기회를 포섭하고 청년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반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을 전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중해 연안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상호 소통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1년 시작된 ‘YAV’ 프로그램을 2018년 이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평가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될 점은 이와 같은 성과를 유인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 근린 정책 검토(ENP)의 이행에 관한 공동 보고서와 첫 번째 공동 커뮤니케이션 “국제 문화 관계를 위한 EU 전략 강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확실한 지원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42개 회원국들의 유로-메르탈 협정 이외에도 아랍국가-EU 협력, 아프리카-EU 파트너십, ‘5+5 대화’ 등 지역과 하위 지역의 협력 틀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차용할 시에는 외교적인 대외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3) 제주도 적용 가능성

#### • 지역적 관점

제주도 평화문화의 범위를 새롭게 재규정하고 제주도의 미래와 연결하여 다양한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먼저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 4·3 평화기념관은 대표적인 다크 투어링의 공간이자 제주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이기도 하다. 역사적 참상을 추념하기 위해 2008년 조성되었고 매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제주도의 전쟁 산물 유형과 홀로코스트 유형을 분류하여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계획도 있다. 다크 투어리즘 벨트와 같은 관광구역을 구상하여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전달하는 것도 주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베를린 추모비에서처럼 전쟁 혹은 수용소의 현장을 전시하고 고발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보편적 ‘평화’의 가치와 의미에 호소하는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에서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관계적, 심리적 차원의 공감이나 보다 유익한 접근방법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관광과 달리 해당 공간에서의 진정성과 현장성이 중요하므로 역사적 사실에 낯선 타자에게도 문화적 접근이 설득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추모비 ‘통곡의 벽(The Wall, 1982)’에서처럼 기념물에 미국적 진취성이나 진진하는 용사상이 없더라도 평화와 생명의 의미를 함축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125도 각도로 두 개의 직선이 브이 날개모양으로 뻗어있는데, 양끝은 약 70미터 높이의 벽이지만, 꼭짓점을 향해 점점 낮아져 중심부에는 3미터에 그친다. 화강석으로 만든 벽에는 죽거나 실종된 5만 7천여 명의 이름을 음각으로 새겨놓았는데, 벽은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단순화했다. 작가 린(Maya Lin)은 기념물이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상실의 고통과 생명의 소중함을 정직하게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작가, 작품, 공간 모두 매우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지만 전쟁과 평화를 새롭게 설정하는 새로운 시도로 상징되었다. 폴 코너튼(Paul Connerton)은 다양한 집단적 기억과 장소, 건축이 연결성을 통해 사회적 집단과 유·무형 유산, 감정적 연관성에 주목한다. 역사적 기념물 혹은 장소는 사회의 공적 이익이므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피력하는데, 시민들의 참여, 공론의 과정, 의견의 합치,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과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문화유산 수용의 관점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대대로 전승된 유산과 평화를 결부시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평화는 제주도민, 시민들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빈약하여 지역도민보다 세계의 평화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제주도의 삶의 양식과 사회적 가치가 체화된 유무형의 자산, 제주도의 민속, 의례, 역사 등의 연관성을 연결하여 현재 제주도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의미와 내용에 연결시켜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강문중(2016)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제주신화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신화를 둘러싼 인물들의 네트워크와 민속·의례, 역사와의 연관성 등을 현대인들의 이해관계와 향유방식과 연결시켜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문화적 원형을 살펴보면서 제주도만의 평화의 유래를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단순히 현대사적인 평화 정착이 아니라, 본래 제주도민의 뿌리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의미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화 혹은 관광 상품의 개발 혹은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현대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국제적 관점

다음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한 평화담론을 유인하려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평화담론이 요구된다.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정의가 규명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규범과 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상호 간의 소통과 공동체의 연대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평화와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화의 키워드를 축척하고 이들을 글로벌하게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와 기억’을 주제로 과거사 문제 혹은 다른 평화적 관점을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 중국, 일본 등의 네트워크에서 논의하는 시도할 수 있고, 일본을 비롯하여 과거 서로 반목하던 국가들과의 화해모드 조성에 기여하는 아시아 ‘평화 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 각국의 평화스토리를 통해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비롯하여 비·가시화된 평화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조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평화를 현재 국제정세 및 국내 사회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재정립하고 이를 아시아 젊은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시민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평화에 필요한 요소를 민주주의와 결합시켜 정치사회의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담론의 확산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정치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시민들이 평화문화를 체화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확대하려면 평화교육에서도 단편적이지 않고 다양한 내러티브를 사용해야 한다.

종합해 볼 때, 평화 담론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시민들에 의해서 발화되어야 평화담론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란 단순히 오래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며 인간의 안전은 물론 행복한 삶을 담보해 주는 평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형식적으로 회자되는 평화가 아니라 구체성을 수반하는 여러 형태의 평화담론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에서 주도적 국가임을 보이면서도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통용하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친구를 만드는 것(making friends for a better world)’ 비전과 ‘더 나은 세상(our better world)’ 전략으로 다양하게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법으로 생동감있고 설득력있는 평화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V. 나가며

이 글은 평화담론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 문화적 접근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유럽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반도에서 논의되는 제한적 평화의 개념에서 벗어나 확장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였다. 특히 레더라크가 논의한 갈등전환과 ‘도덕적 상상력’ 개념은 자기성찰과 소통의 기제로서의 문화 기능과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치유의 역할로서 작동하는 문화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화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잠재력으로 인식된다.

문화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도 상호교류를 통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역사상 사건과 이로 인해 공유된 상징물, 의례, 문화적 표징을 통해 현재의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을 규정할 수 있듯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 기대치를 이해하는 중요하며, 문화는 각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자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udrun Kramer 2014). 세계대전 직후 예술 생산의 관점에서만 이해되던 문화의 개념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문화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여 발전의 토대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될 정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담론의 변주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평화의 섬 실천협의회(2009)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해 평화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논의와 기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의 섬을 위한 평화문화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힘과 지배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존재성과 집단의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제주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특히 제주도 역사는 독립과 통합, 연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태가 변화하면서도 외부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문화 흡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문화의 독자성과 세계성의 문제, 문화의 관광자원화 문제 등을 논의하지만 평화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민의 삶 속에서 발현시킬지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현대사적인 평화정착이 아니라 본래 제주도민의 뿌리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의미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 혹은 관광 상품의 개발 혹은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갈등과 대립, 폭력의 관계에서 평화문화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행정·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새로운 평화비전이 수립되어 제주도 특성이 반영된 건설적인 평화담론이 형성되고, 이들이 시민들을 통해 발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태도와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평화담론의 내용들이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구역의 일환으로 평화의 의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으로부터 재생적으로 유인함으로써 제주 시민에게서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제주를 바라보는 외지인(타자)은 제주도를 통해 다양한 평화의 의미를 상기하고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상징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문종. 2016.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가능성.” 『영주어문』 32. 55-75.
- 구연정. 2018. “나치 범죄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통합유럽연구회 편.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 서울: 책과 함께
- 김동진. 2015.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90-303.
- 김윤정. 2016.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커뮤니케이션 적합성과 문화적 가치인식, 문화적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 제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3) 1523-1536
- 김현식·양정호. 2014. “다크 투어리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 14권 9호. 176-187.
- 김홍수. 2020. “존 폴 리더락의 ‘평화세우기’가 도덕과 평화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도덕윤리와 교육』 제66호. 309-334.
- 박명규·이상신. 2011.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3집 1호. 129-173.
- 양영은. 2019. “‘음악’이 할 수 있는 일...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KBS 2019/4/30)
- 정수희·이병민. 2020. “콘텐츠 투어리즘의 구성요소와 한국형 모델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8. 204-249.
- 정천구. 2011. “평화의 두 가지 개념에 관한 논쟁.” 『서석사회과학논총』 제4집 1호. 18. 39-69.
- 평화의 섬 실천협의회 문화예술분과. 2009.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문화예술: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예술의 한 모형.” 『본질과 현상』 가을 17호. 130-148.
- 홍용표. 2018.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제5권 2호. 5-30.

- Lederach, John. Paul 저. 김가연 역. 2005. 『도덕적 상상력(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파주: 글항아리.
- Lederach, John. Paul 저. 김동진 역. 2012.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서울: 후마니타스.
- Boulding, Elise. 1990. *Building a Global Civic Culture: Education for an Interdependent Wor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6.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owards and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 Gerber. 2018. "Arts-Based Research Approaches to Studing Mechnisms of Change in the Creative Arts Therapies." *Frontiers in Psychology* November. doi:10.3389/fpsyg.2018.02076
- IFA. 2011. Conflic resloution through cultural and civil society initiatives.
- \_\_\_\_\_. 2013. Culture and Conflict
- Insalaco, Eleonora, Basem Mahmoud, and Christine Rizkallah. 2018. Intercultural Trends and Social Change in the Euro-Mediterranean region: The Anna Lindh Report 2018.  
<https://www.annalindhfoundation.org/resources/publications/intercultural-trends-and-social-change-euro-mediterranean-region-anna-lindh>  
(최종검색일: 2020.10.15.)
- Wuthnow, Rober 저. 최셋별 역. 2003. 『문화분석』. 서울: 한울



평화의 섬 시리즈 ①

#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Island of Peace and Cultural Approach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2월 4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값 8,000원

ISBN 978-89-93764-27-7

ISBN 978-89-93764-20-8 (세트)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Island of Peace and Cultural Approach

값 8,000원

94300



9 788993 764277

ISBN 978-89-93764-27-7

ISBN 978-89-93764-20-8 (세트)